

멘토링제도로 협력업체와 동반자관계 추구하는 GS건설



〈용산자이〉

1969년 락희개발(주)로 건설업을 시작한 GS건설은 지난 2005년 명칭을 새롭게 바꾼 후 건축, 토목, 플랜트 환경 등에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GS건설은 지난해 수주 8조2400억원, 매출 5조6300억원을 달성해 수주, 매출업계 1위에 올랐으며 특히 수주잔액이 총 25조 6000천억원으로 향후 4~6년치 매출을 확보해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력은 올해도 이어져 수주 8조8000억원, 매출 6조원의 신장된 목표를 설정하여 건설업계 1위를 수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GS건설은 탄탄한 재무구조와 높은 브랜드 이미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 건설업계에 서 새로운 Leading Company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GS건설은 지난해 6월 자재 입출고 현황 등을 매일 전산으로 체크해 공기, 비용, 안전율,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종합 건설관리시스템(TPMS)을 도입하여 기술수준과 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차별화된 경영과 함께 시스템 경영으로 Cost Innovation을 꾀하고 있다.

이와 함께 GS건설은 TPMS를 내년 말까지 전 사업장에 정착시킴으로써 시공의 성역화 및 과학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편집자 주]

GS건설 설비팀은

GS건설의 본사 및 건축, 주택현장 설비 직원은 약 170명이다.

본사 설비 직원은 설비팀, 기전 예산팀, 주택 기술팀, 상품 개발팀, CR 설계팀, 주택CS팀, 초고층팀, PMS팀, 턴키 기술영업팀 등에서 회사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설비팀에서는 지역 협의체 활동을 통하여 신기술, 협력업체 정보, 회사의 표준화를 유기적으로 전파하고 있으며 현장(건축, 주택) 시공, 안전관리, 적재 적소의 인원 배치와 신규 현장의 신속한 MOB 실행 확정 및 제약·클린룸 산업 공장 영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용우 팀장을 중심으로 직원간에 상부 상조하고 도움을 주고 받는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설비팀의 신기술, 신공법 개발 현황

GS건설은 기술연구소와 현장별 경영 혁신을 통해 매년 신기술, 신공법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특허를 획득하기도 했는데 그 중 허가된 특허는 다음과 같다.

△ 빗물 여과장치를 이용한 중수도 처리 시스템

GS건설이 개발한 빗물 여과장치를 이용한 중수도 처리 시스템은 빗물의 부유물질 및 탁도를 여과할 수 있는 부직포층 및 스폰지층, 중금속 및 유기물질을 흡착제거하는 재생 페타이어 여과재층으로 구성된 여과장치와 이 여과장치에서 수집된 처리수의 탁도 성분, 미생물 및 세균을 제거할 수 있는 침지형, 중공사 분리막을 이용한 소독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중수도 수질기준에 적합한 재이용수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빗물이 하부에 연결 설치된 이송배관의 체크밸브를 통해 공급되면 재생 페타이어 여과층과 부직포층, 스폰지층으로 이루어진 여과재를 차례로 통과하므로써 상향류 방식에 의해 여과처리 된다. 이어서 슬레노이드 밸브가 구비

된 역세수 배출 배관을 통해 위의 여과재를 하향류가 발생되는 저장조를 통해 역세척하므로써 재이용수를 생산한다.

◆ 빗물 처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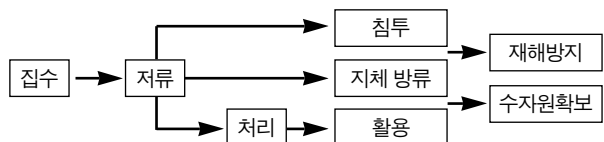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배제되는 우수, 그리고 초기강우와 함께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함유한 하수를 효율적이며 경제적이고 간단하게 운영할 수 있는 대단위 주거시설의 우수 및 비점오염원 처리공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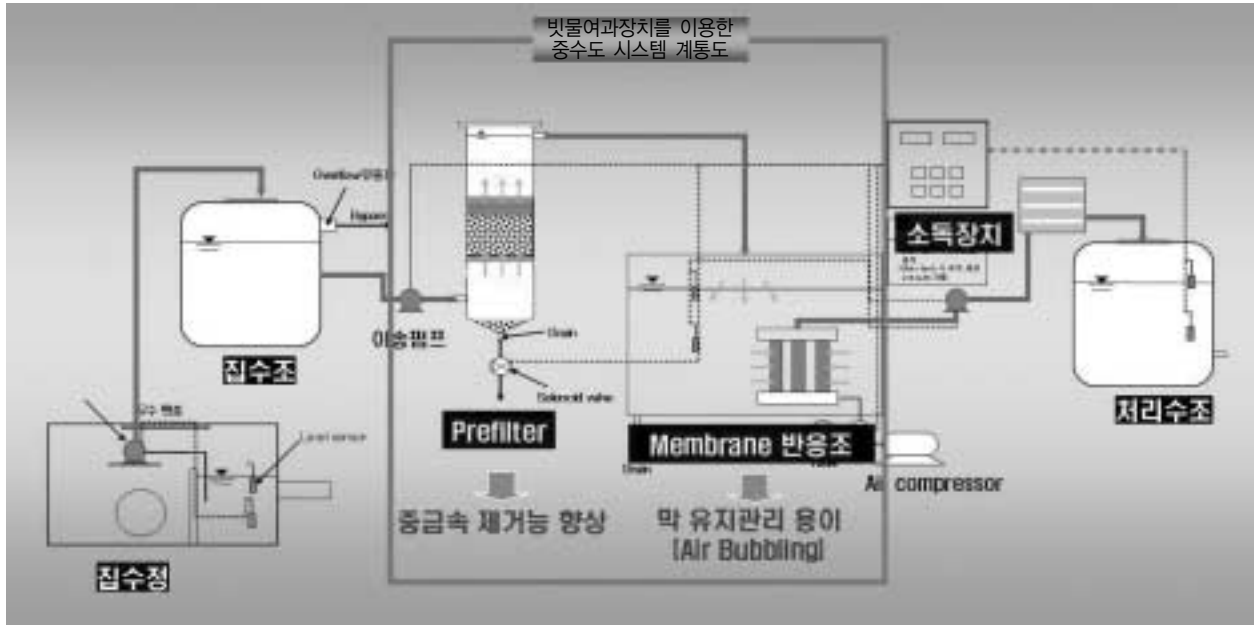
- Membrane 및 여과조 : Pre-filter 반응조를 통해 조대 SS와 일부 탁도물질이 제거된 처리수를 0.4 μ m의 Pore를 갖는 MF Membrane을 통해 SS 및 대장균의 완벽한 제거와 중수도 사용기준인 탁도 2NTU이하에 맞게 처리

- 소독장치 : Membrane에 의해 고형물 및 대장균이 완벽히 제거된 처리수 중에 포함된 병원성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UV 소독을 통해 멸균

◆ 연구개발성과

- 개발 시스템 적용 모식도





• 시스템 개발 및 적용 성과

경제적인 빗물이용시스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여과기 시스템 대비 초기 설치비용 81%, 연간 유지관리비용 43% 절감(Q=20m³/d 기준)
빗물이용시설 설치 제도에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빗물 처리시설로 적용 가능
친환경 건축물 인증시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사용량 절감, 우수이용시설 설치 등의 측면에서 인증심사 기준 만족
경쟁사 대비 우수 경쟁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거 정비산업 등에서 빗물이용시설 및 유출 저감시설의 설치 반영
GS건설 기술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제 0450486호 (빗물 여과장치와 이를 이용한 중수도 처리시스템)

△ 실내공기질을 향상시키는 환기시스템

GS건설이 개발한 Xi-Fresh Air System은 거실과 주방에 실외의 신선한 공기를 24시간 공급하고,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여 입주민의 쾌적성을 향상시키는 환기시스템 (거주공간=청정공간, 5단계 천정필터 시스템 채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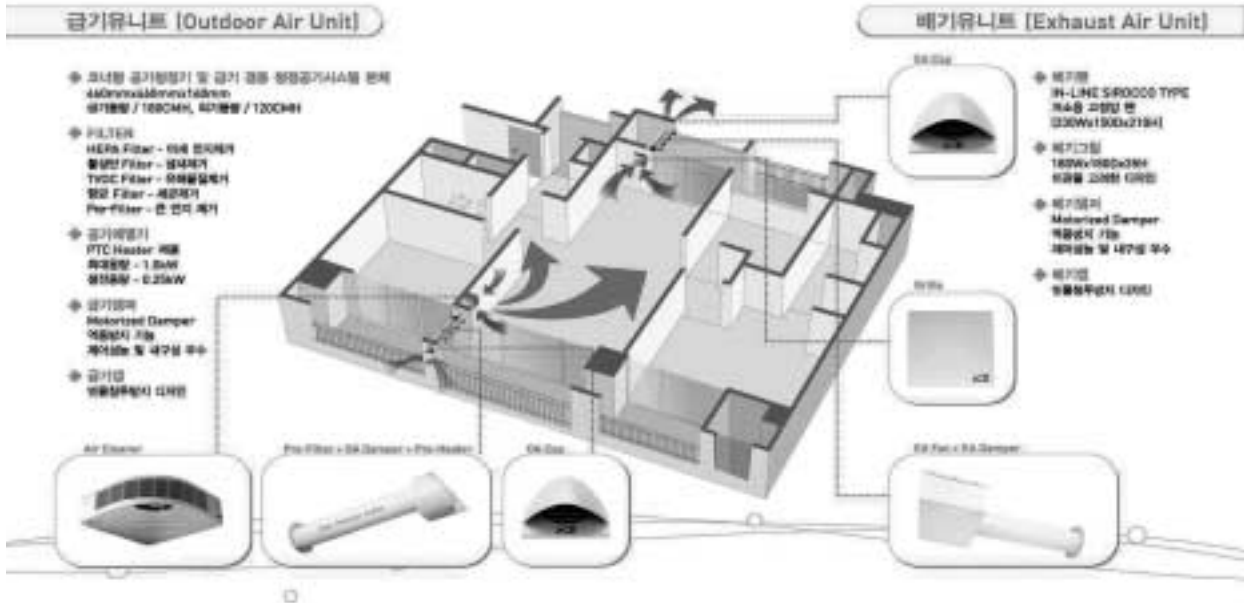
◆ 환기기준 강화에 따른 세대 전체 환기시스템(Xi-Fresh Air System-II)인 HR(Heat Recovery)system과 CM(Clean Mixing)system을 개발 진행 중이며 향후 분양상품에 적용할 예정이다.

시스템 개요

- ◆ 공기청정 + 환경시스템
: 환기모드(외기도입/오염공기 배출)로 사용이 가능하며, 공기청정기 단독으로 사용 가능
- ◆ 특허 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
- ◆ 성능 검증
: 인하대 기계기술공동연구소
: 연세대 건축과학연구소

운전특성

- ◆ 운전기능
청정 - 공기청정기로 운전
환기 - 외기 도입 + 실내공기 배출운전
절전 - 동절기 전기세 절약 운전



〈Xi-Fresh Air System 계통도〉

- 자동 - 환기10분 + 청정20분 반복운전
- 필터교환 - 필터교환시기 알림 기능
- 예약 - 예약운전 후 정지 기능
- 음성 - 음성안내기능, ON/OFF 가능
- 수면 - 조도 센서에 의한 야간 정숙 운전

◆ 5단계 Filter system

: PRE + 항균 + TVOC + 활성탄 + HEPA

GS건설의 협력업체 관리 및 시공평가

GS건설은 협력회사와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업체 멘토링 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시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건설회사는 업무 속성상 협력업체 의존도가 70~80%에 이를 정도로 높다. 그러나 공사원가를 낮추기 위해 협력회사의 납품단가를 낮게 계약하는 등 전형적인 갑을관계 관행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 건설업계의 현실이다. 협력업체에 압력을 넣는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원청회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협력업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이 높아져야 원청사의 경쟁력도 살아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GS건설은 2001년부터 협력업체와 거래 시 어음제도를 폐지하고, 현금성 결제방식인 구매기업 전용 카드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2004년부터 “협력업체 멘토링제도”와 “자이 CEO 포럼” 등 협력회사와의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운영중이며, 협력회사와의 각종 공사정보나 기술을 공유하는 전산시스템인 “eWorks21” 이나 “GS partner” 시스템을 통해 GS건설과 협력회사는 다양한 공사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세세한 문제까지 서로 토론하고 있다.

협력회사와 상생관계 유지를 위한 장기적 투자는 GS건설이 지난해 매출액과 수주, 순이익 증가율에서 모두 업계1위로 올라서는 발판이 됐다는 분석이다.

■ 협력업체 멘토링 제도

“멘토링 제도”는 회사 내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선배사원이 신입사원을 1:1로 전담해 실력을 향상 시키는 기

법으로 많이 알려진 제도이다. GS건설은 이 제도를 응용해 임직원과 협력업체간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구축, 협력회사의 애로나 건의사항을 듣고 업무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협력업체의 “멘토”가 된 임직원들은 먼저 협력회사에 대해 공부하고 관계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회사를 이해하게 된다. 관계가 깊어지면 단순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전달 역할을 넘어 GS건설과 협력회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얻을 수 있다.

■ 자이 CEO 포럼

멘토링 제도가 임직원들간 대화통로 역할을 한다면 “자이 CEO 포럼”은 경영진들의 만남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던 협력회사 대표이사들과의 만남을 정기화 한 것이다. 협력회사 대표이사들과 GS건설 임원들을 대상으로 2004년 9월 “자이 CEO 포럼”을 시작한 이후 2개월마다 정기 모임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외부강사를 초빙, “경영자 수업”까지 겸하고 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 속에서 GS건설과 협력회사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는 긴밀한 상호 협조와 정보공유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자이 CEO 포럼”은 협력회사 대표이사와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용우 설비팀 부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

▶ 협력업체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협력업체의 현장시공 기술수준이 건축물의 품질을 좌우하는 현실에서 설비분야의 새로운 기술 및 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사회 전반에서 팽배하고 있으며 설비 협력업체 상호간에도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협력업체는 단순시공에서 탈피하여 도면검토 및 기술능력 배양을 통해 원가절감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현실이다.

또한 정도경영과 공정한 경쟁으로 Clean Company를 달성하여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대한설비건설협회에 하고 싶은 말


설비분야는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 유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기술도입, 기술개발, 기술제휴 등을 통하여 노력해 왔으며 아직도 미흡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본다.

기계설비는 건설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분야이다.

기계설비는 냉난방, 위생, 환기 등을 이용하여 거주 공간의 쾌적성, 청정성을 요구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에너지를 다루는 업종이다. 그러므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자원에 대한 시설물의 최적운전 조건까지 고도의 기술력으로 업무수행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 실정은 그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위상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수인력 확보가 우선 필요하고 전문성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 신기술 개발과 기술혁신, 고용 창출을 유도하여 설비분야를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회 및 협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설비분야가 국제적인 기준과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각 분야별로 세분화된 해외기술 및 개발을 소개하는 전문지도 필요하다.

설비분야의 가치를 높여 나가고 설비전문업체의 권익을 위해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어 주시기 바란다. 



〈LG - Dow Polycarbonate Project〉

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통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있다.

■ Clean Company 정착을 위한 윤리 경영

GS건설은 정정당당히 승부하여 탁월한 성과를 창출함과 함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하여 고객과 사회가 신뢰하는 “사랑받는 기업시민”을 궁극적인 존재 이유로 하고 있으며, 편법적인 부정행위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는 21세기 기업의 생존을 담보할 기본 과제는 투명성 확보와 윤리적인 기업의 실현이다.

건설산업 또한 과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선진 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시작으로 내부 자정 노력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 GS건설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만이 고객이 신뢰하고, 사랑 받을 수 있다는 신념하에, 몇해전 부터 임직원 선물 안받기 캠페인 등 조직, 제도,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윤리 경영을 실천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신문고 제도를 상시운영하여 협력회사의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을 즉각 해결하고 있다. GS건설은 임

직원 및 협력회사 직원 Mind을 위한 윤리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 강화하고 윤리교육의 확대를 협력회사 대표자 안전교육시 당사의 윤리경영에 대한 방침을 전파 및 당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협력회사 임원, 현장소장은 GS건설 안전혁신훈고 수료과정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다.

■ 협력회사 평가와 우수협력사 인센티브 제

현장 평가기준은 매분기(3, 6, 9, 12월)익월초,일정 기성 부분 발생시 평가하는데,항목은 품질, 환경, 원가, 공기, 엔지니어링, 기능인력 기능도, 자재장비, 자금, 협력도 등을 평가하여, 연말에 우수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수의계약포상제, 계약 이행증권면제 등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협력회사 평가실시후 협력회사별 취득점수는 현장 및 관련부서에 협력회사 관리의 주요지표로 활용하고, 협력회사에 자기회사의 평가점수를 통보하여 부진한 부분의 집중관리를 유도하고 있다.☺